# “오늘 대한민국, 순국선열 희생 덕분”

## 조계종, 정전 70주년 ‘제2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코로나19 이후 첫 야외 법석**
**종단 차원 행사로 의미 더해**
**진우 스님 “희생의 역사 간직”**
**윤석열 대통령도 조전 보내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는 민족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 바치신 선열들과 호국영령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올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 참전국 장병,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을 추모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6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2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실내에서 약소하게 치러지던 추모의 법석은 4년 만에 다시 야외에 펼쳐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단이 행사를 주최하고,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공동주관을 맡아 의미를 더했다.

행사 1부인 천도의식은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인 정오 스님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43호 경제어산 회원 스님들이 맡았다. 스님들은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앞에서 순국선열 호국영가들의 영가 청혼으로 의식을 시작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상철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이운차에 올라 특설무대까지 이동해 특설무대에 위패를 안치했다. 특설무대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6.25전쟁 16개 참전지원국, 6개 의료지원국 용사들의 위패도 함께 마련했다.

2부 추모법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평안을 기원했다. 스님은 “오늘 이 푸르른 실록의 국토에서 후손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마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운차에 올라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위패를 이운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상철 군불총 회장.

이어 “정전 70주년인 지금, 남과 북이 여전히 나뉘어 살고 있다는 점이 후손으로서 부끄럽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호국영령님들의 고귀한 희생의 역사를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다가올 새로운 미래 천년의 민족 번영을 위해 후손들은 모든 역량과 원력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뜻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구국 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전했다.

위령대재를 주관한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평화와 화합의 가르침 위에서 우리는 전쟁에 희생된 모든 영가를 분별하지 않고 위령재에 모셨다”며 “영령들께서 생멸 없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극락왕생하시어 열반의 행복을 누리시도록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철 군불총 회장은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후손이 지켜가야 할 주요 계승 의례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장병들의 호국 의지를 고양해 국운융창과 무운장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원욱 국회정각회 명예회장도 단상에 올라 부처님의 자비가 전쟁의 상흔을 보듬길 기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를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위령재에 참석한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박찬근 군불총 공군부회장이 대표로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국군장병의 무운장구와 남북통일로 더 이상 분단의 아픔이 없길 발원했다.

# “지계가 곧 보살행입니다”
# 진우 스님 포살법회 법문

## 6월 14일 직할교구 포살법회서
## 지계, 육바라밀행 실천 강조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직할교구 포살법회에서 소참법문을 설하고 있다.

“보살이 하는 행동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저절로 인욕하게 되고 저절로 보시하게 되고 저절로 정진, 선정, 지혜가 나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6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직할교구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법사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했다.

포살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표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봉독하며 십중계와 48경계를 설하고 소참법문을 이어갔다. 이날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지계의 중요성과 육바라밀의 실천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이기에 스스로 평안해야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스님으로서의 위의가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재가자들을 포교 · 전법할 수 없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를 범하면 그 순간은 즐겁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고통이 오니, 탐진치 오욕락에 빠지지 말고 계를 잘 지켜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보살행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건 인연법과 인과법”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인과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것이다. 한 번 즐거우면 한 번 괴롭고,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건강했다면 병을 얻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와 진배없는 의미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육바라밀의 실천이 보살행임을 강조하며, 그 안에 지계(持戒)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보살행을 하면 인과와 업장이 없기에 괴로움도 고통도 없다. 보살행을 하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 되고, 인욕행이 되고, 보시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보은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추대

## 6월 15일 운영위원회서… 추대법회 10월 1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조실에 원로의원 지명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법주사(주지 정도)는 6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실에 지명 대종사를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회주에는 도공 스님, 율주에는 무상 스님을 추대했다.

이 자리에서 지명 대종사는 “인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모든 대중이 수행정진해 나간다면 산중에 수행풍토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법주사를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진표율사의 미륵사상과 유식사상, 금오 스님의 선사상과 수행정신이 한국불교에 올곧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실 추대법회는 금오 스님의 55주기 다례일인 10월 1일 오전 10시 법주사에서 봉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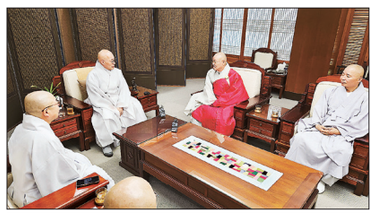
지명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2년 금산사에서 용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명 스님은 전통교학과 현대불교학에 두루 밝은 학승(學僧)으로 꼽힌다. 범어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공부한 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을 마친 지명 스님은 종단 주요소임을 지내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 청룡암과 의왕 청계사, 괴산 각연사에서 각각 주지 소임을 맡으며 일선 포교현장에서 불법 홍포에 앞장섰다. 제9, 12, 14대 종회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섰으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동국학원 감사 등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맡아 교구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진력했다.

저서로 〈중국불교선사상 연구〉 〈하이데거와 히사마 쓰시니치의 무사상 비교〉 〈만공의 선사상연구〉, 〈천태의 불이철학〉 〈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 “조계 · 태고종, 전법 포교 함께 노력”

##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 당선인 상진 스님 만나 환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 수장이 만나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전법 · 포교에 매진할 것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가장 먼저 진우 스님은 상진 스님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불교가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선도해왔는데 근래에 많이 약해졌다”며 “조계종뿐만 태고종에서도 전법과 포교에 신경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현 태고종 총무원장인 호명 스님께서 종단 안정화를 잘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태고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계종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두 스님은 국내에서 불교세가 약해지고 서구종교가 상대적으로 득세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심으로 종단 화합을 이뤄내자고 의지를 다졌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태고종에서 잘 메워주시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진 스님은 “종단협 역할이 상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태고종과 다른 종단들이 보조를 맞추면 불교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임명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에 법상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법상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종책불사 기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4년간 본사와 교구를 잘 이끌어 소임을 잘 마쳤고, 그 공덕으로 새롭게 소임을 이어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종단의 주요 종책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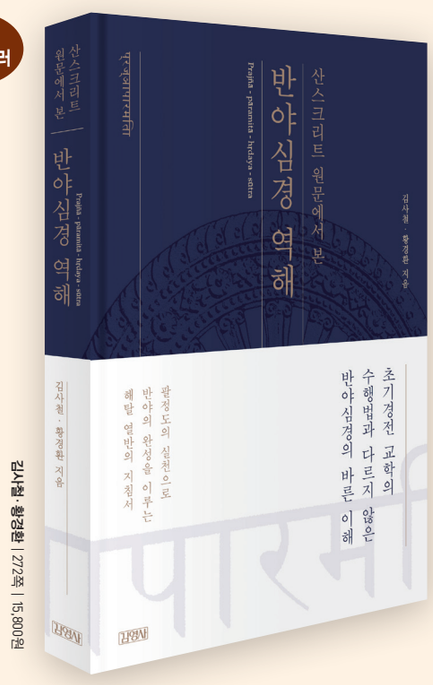
이에 법상 스님은 “대흥사 조실스님과 대중스님들이 다시 한 번 주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종단과 교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신성민 기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출간 기념 법회

김영사

해탈·열반의 관문을 여는 열쇠,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

화제의 스테디셀러



김사철 · 황경환 | 272쪽 | 15,800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미국의 휴즈 사社에서 21년간 원로 과학자로 봉직한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선구자이자 불교 수행자인 김사철 박사와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빠알리 삼장을 연구, 번역하는 초기불전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황경환 박사가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의 우리말 해석을 소개하는 출간기념 법회를 개최한다.

한국에 불교가 전해 내려온 1,600년의 장구한 시간 동안,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지닌 비의秘義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인간 삶의 동반자인 생사生死 문제는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대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어두운 밤의 횃불이며 등대라는 부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행사명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출간 기념 법회
일시 2023년 6월 24일 (토) 14:30~16:30
장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황경환 | 재가 불교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 한국본부 총재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사)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등이 있다.



주최 경북신문, (사)21세기 불교포럼 | 후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주)경주아이씨에스, BBS불교방송 | 협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김영사

TEL. 031-955-3100 www.gimmyoung.com 좋은 사람에 있습니다.